

중국은 大佛 시대

유물 복원과 더불어 당국 지원 활발 최근 세계 최대 108m 관음상 제작 중 관광객 유치 목적, 중화 우월주의의 우려

중국에서 대형 불상이 잇따라 조성되고 있다. 이는 중국 운거사의 방산석경, 포공사 석가탑 등 고대 불교문화재 및 유물 복원과 더불어 중국불교계에 불고 있는 변화의 새바람이다. 대형 불상 조성은 또 중국 불교 사찰이나 단체 뿐 아니라 관리당국의 물질적, 제도적 지원 아래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총 108미터의 크기로 현재 중화권 최대인 홍콩 포린사원 청동불상의 기록(26m)을 갱신할 '남해해상관음(南海海上觀音)'도 중국에서 건설 중이다. 이 불상건립을 위해 중국 정부는 중화 인민공화국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등의

를 거쳐 해남성 계획청으로부터 건설 비준을 받아 총 8억 위안(한화 약 1200억 원)을 투입했다. 또 해남성 건설 중점 사업으로 2002년 '중국여행업 우선발전 사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거액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남해해상관음'이 단순한 불상건립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음상 조성은 역시 30만평과 해상 1.5만평을 이어 관음광장, 보리수 정원 등을 갖춘 세계 최대의 관음성지 조성계획과 함께 이뤄지게 된다.

이 불상은 정관음(正觀音)의 일체화 삼존 형상으로 설계된 삼면(三面) 관음상이다. 세 가지 형상의 손에는 각각 염주와 연꽃, 경전함을 쥐고 있어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남해해상관음은 문화원의 한국 관계자는 "규모면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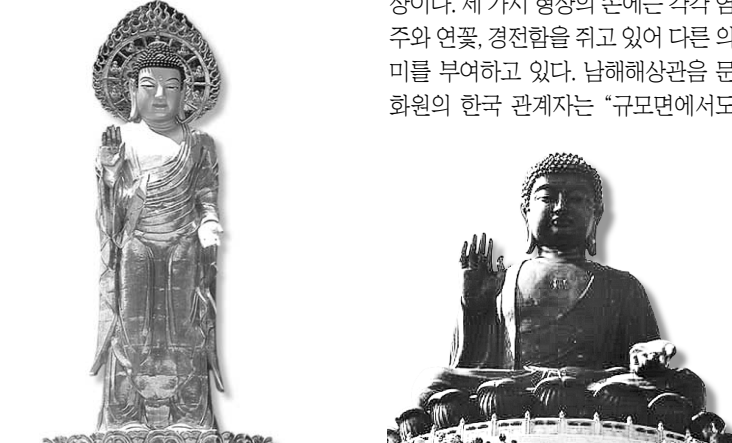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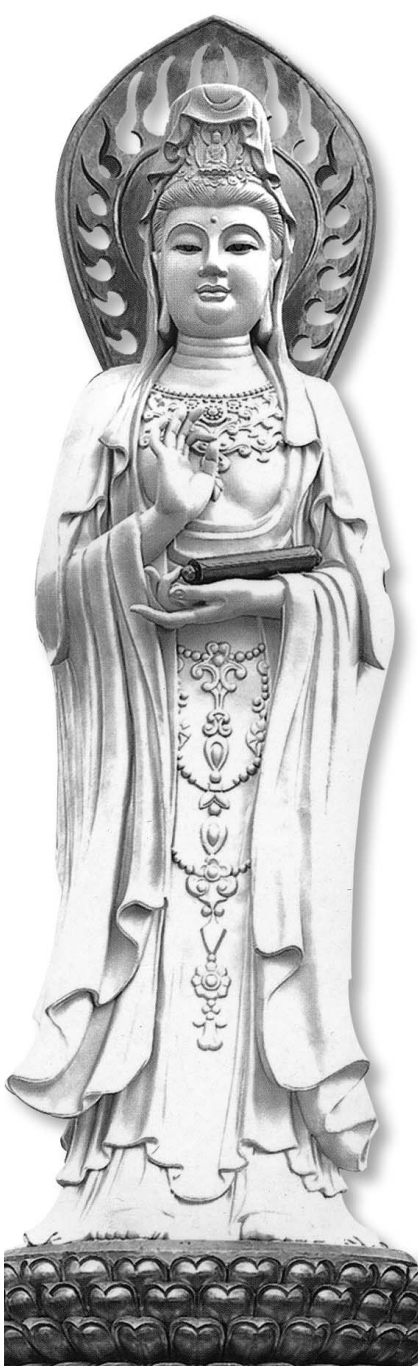
세계최고로 자랑하지만 관세음보살의 평화, 자비, 지혜를 상징하는 삼면관음상은 한국불자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것"이라며 "현재 80%의 공정과정을 마쳐 내년 10월쯤에는 완공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 구화산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지장보살상 건립공사에 착공했다. 99미터 크기로 완성될 지장보살 동상 불사를 위해 해당국인 안후이성(安徽省)과 초저우시(池州市) 및 구화산(九華山)경관관리국이 협조했다.

이 지장보살상은 안후이성 구화산 불교협회의 회장인 인덕스님이 21세기를 맞아 제창한 구화산 불교사업에서 시작됐다. 지장 2월 구화산 불교협회가 초저우시 당국에 공문을 보내 지장보살상을 건립을 건의, 동상이 들어설 부지내의 건물체제와 이주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대불 조성 등의 불사는 본래 대중주의의 연원과 희망을 한데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중국에서 부는 이같은 대형 불상 조성 바람은 중국의 시장경제 확대에 따라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이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있는 불교 사찰들과 고대 유적지는 한국, 일본 등 불교권 국가들의 외국인들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는 관광지가 되고 있다. 사실상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종교집회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형불상 건립은 불교성지 조성이란 목적을 떠나 중화 우월주의의 등을 과시하는데 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성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중국에 대형불상 조성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은 실제 크기 비율로 비교한 것. 왼쪽부터 중국 '남해해상관음'(108m)의 조각도, 한국법주사 청동대불(33m), 홍콩 포린 사원 청동불상(26m).

세계의 불교학 연구현장

⑦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

동아리 형태의 학생활동이 주축 현장 위주의 체험프로그램 각광 학구열에 비해 지원 턱없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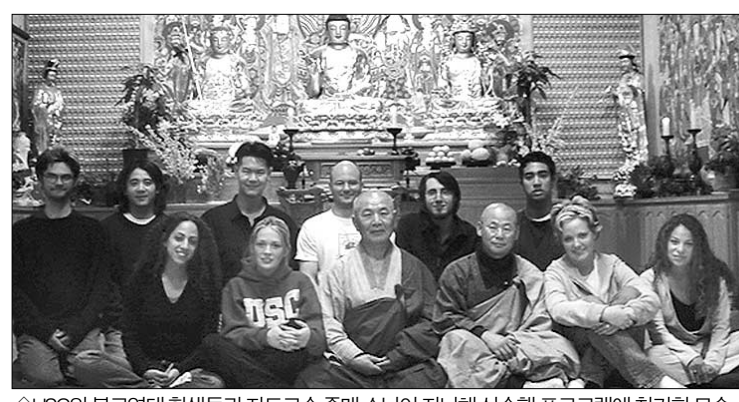
USC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880년에 개교한 USC는 미 서부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대학이다. USC는 미국 내 대학 중 UCLA와 더불어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학생의 비율 또한 높다. 특히 동양학 연구가 활발해 한국학 관계도 발전해 한국 근대사 및 사회 문화사 강좌가 개설되기도 했다.

이처럼 동양과 한국학에 관심을 가져 온 USC의 불교학은 학생활동이 주축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불교 동아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USC의 불교 연대(USC Buddhist Association, UBA)는 1998년 처음 설립 당시 USC의 재학생인 토마스 메이어(Thomas Meier)와 USC 상담 센터의 상창(Shing Chang) 박사의 공조아래 출발하게 됐다. 이후 1999년 한국의 종래 스님이 USC의 불교학 교수로 부임하면서 이들의 지도법사도 합류했다.

1970년 구배 화엄사에서 출가한 뒤 1978년 미국으로 건너가 23년간 미국, 프랑스, 스위스, 헝가리 등 해외의 현지에 포교에 경험이 풍부한 스님은 실질적인 현장 위주의 체험교육을 강조해 왔다. 종래 스님은 "가장 효과적인 불교학 강의를 위해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불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식위주의 전달보다는 한국·중국·인도사찰을 순례하는 현장위주의 체험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이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의 이같은 '체험 교육'은 USC 불교 연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불교 연대 학생들은 매주 1-2차례 자발적으로 모여 명상을 통해 수행하고 불교 교리 공부도 함께하고 있다. 또 2000년부터 매년 수행 여행, 선 수행 캠프 등을 계획, 실행해 오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선 센터(Diamond Zen Center) 등의 미국 내 유명 명상 모임에도 참여했다. UBA의 학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다양한 형태의 수행을 통해 직접 체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배우게 됐다"며 "한내 이웃 종교연대나 다른 사상을 가진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갖게 됐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에 비해 학교와 지역 불교계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매주 30여명의 학부생이 참가하는 정기적인 강의와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연대와 지도 교수를 위한 번번한 활동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강의와 교수 연구실을 겸하는 학내 공간도 지도교수 부임 전에는 갖췄지 못했다. 종래 스님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불교관'이라는 명칭의 공간이 겨우 마련됐다.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불교관련 서적 2000여권도 따로 열람할 장소가 부족해 결국 USC의 중앙도서관 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에 종래 스님은 "LA의 사찰이나 재가신도 등 불교계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선토틀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LA 한인 카톨릭 신자들이 때때로 협조해주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성희 기자



◇USC의 불교연대 학생들과 지도교수 종래 스님이 지난해 선수형 프로그램에 참가한 모습.

中, 세계 최고 목판 활자본 전시

지난 11월 12일, 중국의 서하왕조에서 만들어진 유물이 북경 공자묘 안에 위치한 수도 박물관에 전시돼 15일 정식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불교 성서>가 보도했다. 이 문물 가운데는 세계 현존 목판 활자본 중 가장 오래된 서하문자로 씌어진 불경과 국보급 동불상도 포함되어 있다.

이 서하국 문물은 처음으로 북경에서 전시된다고 하는데, 이번 전시에는 145점 중 51점이 국보급이다.

닝시(寧夏)박물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것은 북송의 비승(畢昇)이 발명한 활자

인쇄술 보다 앞선 것으로, 세계적으로 목활자 기술의 발명 시간대를 앞당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대만= 이상미 통신원

中, 허란산 남사 성보 대량 발견

중국 내몽고자치구의 허란산(賀蘭山) 남사(南寺)의 보리탑 탑기 발굴 작업 중 대량의 불상과 불탑 등 진귀한 불교문화재들이 발견됐다.

발굴작업 중인 점은 티베트 불교의 유명 사원으로, 사원의 보리탑은 금년 7월, 비로 인해 붕괴됐다. 이번 공사 참가자는 현재까지 탑신에서 1만 건 이상의 불상과 불탑을 발굴했지만, 무너진 충격으로 온전한

문화재는 800여 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남사의 보리탑은 제 6대 달라이 라마(1638년~1746년)의 유골을 넣어 둔 탑 중의 하나로, 그는 이곳에서 30년을 생활했으며, 1764년 이곳에서 입적했다고 한다. 전기에 따르면 이 6대 달라이 라마가 입적할 당시는 더운 여름이었는데, 법체(法體)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으며, 영탑에 모셔진지 20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온전하다고 한다.

대만= 이상미 통신원

캄, 여성폭력 대처 종교회의 개최

세계종교평화회의(WCRP)의 아시아 지부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각 국가, 정부의 행동요구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 태국 등에서 온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민간사도단체 여성 200여명이 참석했다.

WCRP의 캄보디아 지부는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3명 중 1명의 여성이 구타당, 강간 및 기타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난 10년 동안 전쟁 피해자의 90%가 민간인, 그것도 압도적으로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가의 정부에 여성 폭력 금지조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이 채택됐다.

불교의식(조계종 소속) 심심 특별모집

본 교육원에서는 2004년 1월 5일 3기 첫 개강일부터는 조계종(소속) 스님들을 위하여 별도 수강반을 마련하였사오니 불전 의식을 배우시고자 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아래 모집기간중에 본 교육원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요일과 수강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기간 : 2003년 11월 25일 ~ 12월 25일까지

아 래

비구니스님

- 초급반: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까지(과정 4개월)
- 중급반: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까지(과정 6개월)

비구니니스님

- 초급반: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까지(과정 4개월)
- 중급반: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까지(과정 6개월)

과 목

- 초급: 목탁 요령 사용법, 새벽도량서, 중성, 2단예불, 사시마지 불공, 행상축원, 관음청, 지장청, 관음시식, 배송 등...
- 중급: 시련절차, 깨달음, 천도, 49체 재공법, 상가 엄불 다비판, 구명시식, 방생의식, 불상행화 점안법, 각종고사, 재장엄번 작성법과 설치법, 경가축원문작성법, 위패, 지의, 전 만드는 법, 사물다루는법(정근복, 천수복, 태진)
- 의식(속성)만 시간이 없어서 짧은 기간에 이수하실분을 위하여 별도 지도함.

* 등록시 조계종 소속 승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승려증(앞뒤복사본 1통) 3x4cm 반명함판 갈라신 1장을 본 교육원 사무실에 꼭 제출하여 주십시오.

▶ **준비물:** 두루마침복, 목탁, 요령, 필기도구 각자 필히 지참요양. ... 성불하십시오 ...

교육원 전화: 053)955-7725 (접수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까지)
위치: 대구 동구 신암육교(국민은행 뒤편) 콘도에서 30m 지점 주차시설 : 대구 수협공판장 내

대구불교의식 범음 · 범패 교육원 원장 주 동주(동현) 합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멸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이영숙 원장입니다. 이 가을에 시집을 출판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제목 "바람이 멈추어 선 자리"(짜짜: 이가영)

저자: 그대 그리울때 가을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물들고 인생을 감당하며 그리움으로 울고 있을때 고향길을 열고 가는 어머니 품속으로 포근한 바다가 있었다. 가슴에 남아있는 그리움 이별의 고통에서 고통으로 서 있던 시간들은 이제 자유로와 질때다 ... 성향

부족한 글 외로움과 이들을 함께 나누는 시(詩)가 되었으면 합니다.

▶ 판매처 : 교보문고, 영풍문고, 여시야(문교계사), 태형서적, 두레문고 외 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 연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大우, 초 · 재운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거주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32)345-5411

휴대폰: 011)288-2944

승복 법복 인네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테일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역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면 100%(역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숨 없는 누비(역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속 누비(역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면 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지아열 중앙로역 3번출구(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장각

아름스복

전시장: 053-256-0108
공 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卍 鑿丸

초 의 환

선 · 후천의 생명력은 먼저 뇌세포에 전달되고 다시 신경조직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분배됩니다. 허나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과 기능저하로 인하여 뇌세포가 무기력 해지거나 경화 신경세포소실감소 등의 **뇌기능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20세 후반 부터는 하루에도 수많은 뇌 신경이 죽어가며 **40대는 30% 50대는 60%의 기억력 감퇴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골수의 바다인 뇌에 정(精)이 부족해지면 머리가 희미해지며 정강이가 시큰거리고 눈이 침침해지며 마음작용(情)도 부족하게 됩니다.

또한 독서나 기도, 컴퓨터 사용, 집중 등을 요하는 정신활동에 쉬 피로해지는 것은 인체 총 에너지의 20% 이상이 소모되는 두뇌에 기혈과 필수 영양소들이 공급되지 못한 때문입니다.

초의환은 **깨달음 · 집중 · 운동기능 · 기억력 · 호르몬 생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뇌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옛 선인들이 사용하던 선가의 비전을 토대로 하여 한방과 면역, 영양학적인 측면까지도 세심히 고려하여 식품화 시킨 제품으로, **지구 에너지가 높아지고 변화되는 시대에 있어서 몸과 마음의 자원성능**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수행자, 기도인, 잠을 즐기고 싶은분, 장시간 컴퓨터 사용자, 야근근무자, 두뇌기능저하가 염려되시는분, 병후회복인, 피로회복, 숙취 등에 도움이 됩니다.

1개월분 13만원 (400g)

사리자 02)878-2515 / 011-9715-6071
서울시 관악구 봉천 8동 1554-18 201호